

선거일정

선거일 : 99년 11월 10일, 11일 양일간
 주 간 : 09시30분~18시00분
 야 간 :
 첫째날 : 09시30분~21시30분
 둘째날 : 09시30분~20시00분

투표소

- 제1투표소 - 인문대 2층 로비
 인문대, 인문학부 전체, 일어, 중어, 영문, 러시아, 연극영화(아)
- 제2투표소 - 법정대 1층 로비
 법정대, 사회과학부 전체, 행정(아), 신문방송홍보(아)
- 제3투표소 - 경상대 2층 로비
 경상대, 경상학부 전체, 호텔경영학과(아)
- 제4투표소 - 자연과학대 1층 로비
 물리, 생물, 화학, 유전공학, 자연과학부 전체, 자연과학부(아)
- 제5투표소 - 자연과학관 1층 로비
 수학, 응용통계, 전산과, 정보과학부 전체, 전산(아)
- 제6투표소 - 공대본관 3층 로비
 토목, 전기, 전자, 청통, 기계, 거대학부, 전기, 기계, 토목(아),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아)
- 제7투표소 - 1공대 1층 로비
 고분자공, 화학공, 고·화학공, 환경공, 전제과, 환경·화학(아), 화학공학부, 화학공학부(아)
- 제8투표소 - 2공대 1층 로비
 산업공, 도시공, 건축공, 건축·도시공학부, 건축공학과(아), 산업및기계공학부, 산업및기계공학부(아), 건설공학부, 건설공학부(아)
- 제9투표소 - 생활과학대 1층 로비
 생과대 전체
- 제10투표소 - 체육관 1층 로비
 체육대 전체, 운동기능학과(아)
- 제11투표소 - 미술대 신관 1층 로비
 미대 전체,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전체
- 제12투표소 - 음대 1층 로비
 음대 전체, 음악학부(아)

제16대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가시명 수다쟁이서너
 표.

수원대학교

16대 총여학생회 선거공동자료집

기호 1. '마녀'

여석 드립니다.

제 16대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수 원 대 학 교

16대 총여학생회 선거공동자료집

제 16대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2000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 틀을 벗어난 여성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늘 강요되는 많은 틀속에서 그리고 여성이란 이름아래 고개 숙여야 했던 시간들에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힘겨움이 여성의 선천적인 능력 부족때문일까요? 이것이 아니라면 혹 여성이 틀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학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은 한사람의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위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 총여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틀을 깨고자 그리고 좀더 나은 총여학생회를 만들고자 두 후보자가 출마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찾기위해 일할 두 후보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첫 걸음속에서 그녀들의 당당한 외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16대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6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김경영(경영회계 97) 박선영(조형예술 96)과 기호2번 김문희(가정관리 97) 안혜영(성악 97)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6대 총여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일상의 정치, 일상의 전복,
그 통쾌한 세상이 시작된다.



해방 수원대 16대 총여학생회

기호 1번

‘아녀’ 김경영 · 박선영과 함께 하는 사람들

LET'S BREAK THE MIRROR!

전복의 시작은 오래된 관계들에 대한 상식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오래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기에 전복의 시작은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전복,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통쾌한 작전이 시작된다.

마녀들의 세상 보기

2000년 여성에겐 과연 희망적인가?

마녀들의 대학 살펴보기

대학, 여대생, 그리고 성차별의 끊이지 않는 삼각관계

차라리 마녀가 된 여성들

마녀들의 사냥! 그 반란을 꿈꾼다!

1. 총여학생회.....뜯고 고치기, 그리고 새롭게 숨쉬게 하기
2. 성차별적인 수원대 전복을 위해 성폭력 학칙제정,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전개하자!
3. 여성학,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한다.
4. 여성의 상상력으로 대학의 공간을 재구성 하자
5. 하향취업의 밋! 여대생들의 목을 조여온다
6. 수원대 민주주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마녀들의 생각
7. 총여학생회,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길들여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 여성의 몸, 우리의 몸에 대해 알고 싶은 몇가지 것들
둘.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의 여성운동
셋. "수원대 여학생들의 소리내기" 설문지

일상의 정치, 일상의 전복, 그 통쾌한 세상이 시작된다.

해방 수원대 16대 총여학생회

'마녀' 김경영 · 박선영과 함께 하는 사랑들





마녀하나! 당당한 그리고 따뜻한 여자!

김경영 (경영회계 3)

76년 서울 출생
95년 혜성여자 상업고등학교 졸업
97년 수원대 경영회계학과 입학
12대 경상대 학생회 총무 새벽소 | 가입
98년 15대 경상대 학생회 기획부장
16대 경상대 학생회 입후보
99년 16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입후보

마녀 둘! 유쾌한 그리고 정이 넘치는 여자!

(조형예술 3) 박선영

76년 서울출생
95년 상명여고 졸업
96년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입학
노래패 새벽소 | 가입
97년 새내기 새날학교 문화 영역 주체
2학기 휴학
98년 복학
새벽소 | 학술부장
가을 민중연대활동 여성분반 활동주체
99년 제 16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입후보



기획1

차라리 마녀가 된 여성들

여성이 여성답게 살지 못하는 시대.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하기 보다는 여성성의 부정과 남성적 가치와 기부자적 사회구조의 편입이 오히려 살아가기 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남성의 역사로 쓰여지고, 이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가치는 무시되며, 사회적 약자로서 그리고, 보살받아야 할 존재로써 여성을 강요해 왔습니다. 자신의 요구와 여성성을 드러내게 되면 가치없이 '미녀야' 이런

명목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거세게 왔습니다. 그러한 사회속에서, 강요해지기 보다는 시대적 반감지! 일상에서의 전복으로 차라리 '미녀'이길 가치있게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화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행복한 세상! 그때 여성이길 단단히 긍정하면서 용쾌하게 웃어보려 합니다. 그 용쾌한 세상으로 그리고 미녀들의 잔치속으로 여권분들을 초대합니다.



2000년, 여성에겐 과연 희망적인가!

새천년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사회전반을 휩쓸고 있다. 대학사회 역시 자유와 명동의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가시적인 차별! 대학사회내에 유행처럼 떠다니는 여학생들의 자멸적 경험들을... 이 둘은 모순임에도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별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편견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니, 이제 침묵이라고 말한다. 이런 모순된 현실은 차라리 마녀가 되어여 하는 현실을 남기고 있다. 이제, 대학과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일상의 변화가 시작된다.

새천년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사회전반을 휩쓸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구시대적인 편견과 관습보다는 새로운 문화, 테크노 음악, 능력있고 다기한 능력의 지식인 우대, 정보통신 사회, 다양한 발상과 특성화 개발을 통한 상품의 성행, 표현 방식의 자유, 영화 거짓말.....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운운한다는 것은 이미 구제대의 발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전 제정된 '가정폭력 금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가히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여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으로서 "남녀 차별은 미성숙한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마지막 구절과 더불어 고정적 성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성차별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침잠해 충고하고 있다. 이제 가부장적,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시대에 뒤떨어진'의 의미로 임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남녀평등의 문제를 명시화하고 있

는데 정말 여성의 현실은 그러한가! 한 번 반문해 볼 일이다. 여성문제는 법제도의 제정이나, 드라마나 코미디에서 보여지는 매체의 회화화된 여성권력으로, 모두 완결된 것일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이면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직장에서 우선 해고되고 있고, 저임금, 불안정한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가사일과의 이중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축소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공적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양육, 보살핌 노동 등의 재생산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시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아우성' 여사 식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대학내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는 극에 달했고, 여성편견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 - 여자는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식의,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등등 - 은 일상의 언어에서 보여지듯 근본적으로 사고해볼 사이도 없이 우리의 의식을 침령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고 피부로 체감되는 여성의 문제가 단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미사여구 덕분에 여성문

제, 여성억압의 현실을 개탄하는 것에 대해 '구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의 의식이 아니다', '고루하다', '식상하다' 라는 말들로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녀 차별' 이란 시대착오적인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쓸 여유도, 그럴 시기도 아닌 새천년에 발맞춘 문화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고, 페미니즘은 20세기를 선도하는 주류가 아닌 새천년 새로운 인간형에 부합되는 어떤 에티켓 정도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남발, 상품화는 여성들의 허위 의식을 만들뿐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여성들의 뒤떨어진 한풀이로 한정지우면서 여성들사이의 분화조장과 고립된 여성운동의 한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여성문제를 언급하다는 것조차, 그리고 성차별, 가부장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조차, 20세기의 낡은 뒷이야기 정도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모두 평등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인간형을 설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00년 희망적인 메시지는 전한다. 지나간 여성억압의 역사와 현재는 일단 외면해야 한다고, 그리고 새 역사를 평등하게 그려가면 된다고 말이다.

현재의 모순을 접고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여성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예상되는 억압의 기제는 일상적이며,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여성' 그 이름만으로 결정되어지는, 한정되어지는 굴레는 여전히 극복되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

그럼, 다시 물어보자. 여성에게 2000년은 과연 희망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일 것이다. 현실을 간파하고 태명되는 여성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여성스스로의 정치- 자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치-와 일상의 전복 없이는 여성에게 희망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세상은 여성주의적 가치, 문화, 담론으로 통쾌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아녀들의 대학 살펴보기

대학, 여대생 그리고 성차별의 끊이지 않는 삼각관계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문제는 어떤 다른 문제보다 부차화된다. 이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와는 별개로 남녀평등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 즉 다양한 가치들의 존중과, 능력위주의 서열, 특성화 개발을 통한 나름의 성공전략, 성역할에 맞춘 교육의 분화로 남녀평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면 여대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는가! 여대생은 여성다움의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고 여성이 소화해낼수 있는 학과 학문의 배치로 더 나은 남성의 배우자로 갖추기 위한 고등교육을 받는다. 물론, 자기 전망의 계획과 남성과의 동등한 경쟁을 이겨내는 무지막지한 여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판단은 인간관계의 부실함이나, 과다한 이기심이 있거나, 여자답지 못하다거나, 독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고, 외모 꾸미는 학습-대학에서 여성들은 많은 외모상의 변천과정을 겪는다.- 의 미달로 냉대받거나, '여성'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전문가' 등의 무성적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학내에 여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숫적으로

로 치자면 주체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정이나 강의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생리대 자판기나 휴게실이 설치되었다.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고 있으며 이 강의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들어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사회 역시 페미니즘의 상품화 논리 속에서 전일보한 대학사회의 모습,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학생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제한들이나 원칙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학교당국이나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일상에서 유행처럼 나타나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예를 들어, 조별과제나 공적으로 만났을 때는 동료지만 학교 행사나 각종 모임 등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여학생을 대등한 위치의 '동료'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관계의 대상으로 파악해 버리는 비인격적인 관계구조를 낳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대학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일상적 문화속에서 드러난다. 여학우가 아닌 대상화

된 여성으로서 여전히 꽃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별 장기자랑 속에서 강간이나 성희롱의 장면들을 연출한다면 여학우가 많은 과에 대해 회롱을 하는 경우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를 점하는 여학생들의 복지는 과거의 상태에서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과 정중에도 차별적인 성문화의 관행은 여전하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학교측의 대책도 부실한 현실이다.

대학사회는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가시적인 분위기의 변화와는 다르게 성차별적인 문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수적인 증가가 단순하게 머리수 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 그녀들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경북대의 경우 여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여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남근상을 세우기도 했으며, 작년 서울대, 홍대 미대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정원에 남학생 할당 비율을 정했다고 한다. 유능한 남학생은 자기의 대를 이을 '계목'으로 보이지만 여학생은 아무리 유능해도 지나가는 나그네로 투자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제 대학사회의 상품화된 페미니즘으로 인한 오해들을 종식시킬 때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여학생들의 차별적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누구의 시선에 걸리는 객체"이거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여성상을 거부하자. 이제 스스로의 '시선'으로 대학을 바라보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따라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차라리 마녀가 된 여성들

우리는 흔히 '마녀' 하면 배부리코에 주글거리는 얼굴을 하고 빗자루를 타고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는 혹은 아이들을 유괴해다가 동굴에 가두어 놓고 살찌기를 기다리는 아주 동화적이거나 신화적인 그림 속의 마녀를 상상하게 된다. 이렇게 동화속에만 존재하는 마녀들이 서구 역사상 실존했을까?

실제로, 마녀사냥이 전개되었던 14-16세기 마녀재판을 통해 희생되었던 마녀의 숫자는 최고 9백만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 마녀가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던 것일까?

마녀를 뜻하는 단어 WITCH 는 고대 영어 WICCA 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의식이나 제식을 창출하는 나이트 현명한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마녀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소위 마녀라 일컬어진 여성들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는데 그 중 독일 마녀 재판관들에 의해서 쓰여진 오랫동안 북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오던 마녀 재판의 지침서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와 있다. 그 지침서에는 여성성에 대한 것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천성적으로 연약하고, 마법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판단력이 흐려 잘속고, 음산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신비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성에 대한 것을 결여된 것, 악한것과 결합되기

쉬운 것, 여성이 자신의 욕구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 금기되었던 것, 남편없는 여성은 부정한 여자, 마녀가 되기 쉽다는 편견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규율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마녀라 칭하며, 처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과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가! 마녀사냥의 형식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이 어느정도 실현되었으니, 이제 침묵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라리 마녀가 되어야 하는, 마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2000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시대의 마녀가 된다고 함은 사회로부터 금기되었던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발언하거나 행동했을 때, 기존사회질서의 유지와 통제를 위해 묘사되는 말이며, 이는 곧 어떤식으로든 사회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스로 마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을 더 이상 미화시키거나, 보호받아야 존재로 안주하는 것이 아닌,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제기를 여성 스스로 하기 위함이다. 차라리 마녀가 되지 않으면..... 이제, 대학과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란 '마녀들의 사냥' 이 시작된다.



아녀들의 사냥 1

총여학생회... 뜯고 고치기, 그리고 새롭게 숨쉬게하기

수원대 총여학생회라는 공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총여학생회의 존립유무에 대한 제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등 등의 물음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왜 대학사회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일단 총여학생회 구성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현실 수원대의 모습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 대중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학생회 체계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한계적인 권력위임을 통해 1년동안의 여학우를 대상으로한 대중사업을 펼친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유권자의 행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는 남성들도 간혹 보여지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여성에게 유권자의 권리를 한번 더 주는 차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유권자의 권리를 여성에게 한번 더 부여한다고 해서 남성차별이라는 말은 실제로 여성들에게 있어 총여학생회라는 기구의 존재자체가 - 여성을 대상으로한 사업이 - 여성차별의 현실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굳건하게 한다.

여성이 자신의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왜 속좁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왜 남성을 배제하는가!"라는 편견을 낳는다. 이러한 편견은 현실 대학사회가 정말 어떠한가라는 분석이 빠져있다.

대학사회의 불균등한 성비와 남성중심의 문화, 수직적인 인간관

계, 남성으로 대표되는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은 여성들 대부분을 조화로운 균형의 조건으로만 파악하고 여성의 시각과 감수성, 여성적 가치에 따른 운영과 질서를 배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문화는 사적인 것, 대의적이지 못한 것등으로 간주해 버린다. 대학의 구성원,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보호받거나, 지도해주어야 할 존재, 연애와 결혼의 관심사밖에 없는, 존재로 대상화한다.

현실은 의도하던 간에 그러지 않던 간에 남성적 가치와 입장으로 대학사회는 구성되며,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남성으로 표준화된 '인간' '학우대중'으로 편입시킨다. 여성적 가치와 여성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무엇보다 현재의 성차별적인 대학사회에서 여성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가치와 담론으로 대학사회의 모든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내야 한다. 여성 민주주의의 지향속에서 여성권의 확보를 통한 성평등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는 관계맺기. 이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경계 짓는 것이 아닌 각 성의 차이의 인정과 긍정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더 이상 총여학생회는 학내에서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아니

라 여성들의 불쾌함과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채워낼 그 무엇인가를 구성해 가는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남성의 시각과 대학의 환상, "남녀평등의 공간"이라는 보여지는 그러저는 모습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에서부터 출발하여 대학과 세상을 감싸안은 자치기구. 다양한 입장을 가진 자치모임과 단위와의 수평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녀들의 사냥 2

성차별적인
수원대를
뒤집기 위한
“성폭력 학칙제정,
자치규약 제정운동”
이 필요하다!



수원대의 밤거리를 거닐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연약한 녀두리가 아니다. 얼마전 모대학에서 화장실에 비디오를 몰래 설치한 사건들이 전해져 오면서 화장실 안에서 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지나가는 발로 흔히 “너희가 무슨 공부냐. 여자는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돼.”라든지, 최근들어 “요새는 수능으로 바뀌 공부 열심히 안해도 잘만 찍으면 되니까 학교에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자가 많아지면 학교가 망한다.” 등 등의 앉아있는 여학생들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잘나가는 남자애들 들어올 자리를 뺏었다고 여학생들에게 학점을 잘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할만큼 여학생들의 일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성폭력의 위험은 재수없게 발생한 우연성이 아닌 고착화된 성차별의 문화와 여성비하적인 성문화속에서 출발되어온 필연적인 문제다.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성폭력 근절, 성문화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그리고 대학구성원의 자치적인 흐름속에서 제정되어야 할 성폭력 학칙제정운동과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것이다.

▶ 올바른 성인식을 위한 대학내 성교육 강좌개설

성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기회도 제대로 없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편견

들로 성폭력은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존재해야 한다. 20년이 넘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깨는 어려운 작업으로서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강좌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회, 여성운동단위, 성폭력 상담소, 자치단위가 함께 만드는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폭력 상담소 개설

96%의 여대생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을 느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과 함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인권 확보와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상담 센터가 건설되어야 한다. 성폭력 상담소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를 위한 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도 요구된다.

▶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규약을 정하는 문제이기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운영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기에 규약제정의 의미보다는 공동체 문화를 바꾸어 가는 시도여야 한다. 학생회와 함께 자치규약 제정 태이블을 구성하겠다. 또한 규약과 더불어 집단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러 행사에 규약제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 성평등한 교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소통의 장을 마련!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대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교육이란 매개를 통해 상호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수님일지라도 여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교사 학생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교수의 성차별적 언행이 실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고, 교과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들의 성역할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들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학생들이 교수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실사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교수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성평등한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녀들의 사냥 3

여성학,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한다!

대학의 교육은, 그리고 수원대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학의 수업은 한 학기당 1과목이 전부이고, 여성학 과목교수 또한도, 전공교수가 아닌 비전공 교수에 의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다. 여성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과 수업과 교양수업은 남성중심의 가치를 전달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단지 남성의 경험, 관점, 가치만이 옳고 정당하며 자신들의 경험, 역사, 가치는 일등하고 비합리적이라 배운다. 교육제도 안에서 여성들은 지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학문적으로 성공할 능력을 갖추게 될지라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법을 배운다.

여성 교육권의 문제는 수업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성'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심리적 억압요인들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배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여성학 수업은 여성학 전공자가 가르쳐야 한다.

여성학이 개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내 교수들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학 강의에 있어서 운영의 비체계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내용의 반복과 혼동등이 이미 진행한 속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내용적 체계와 여성학적 관점을 가진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 대학과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여성학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은 현재의 모순된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들을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으로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문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학문의 차원이 아닌 사회로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학 수업이 구상되어야 한다.

여성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학문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지역사회와의 성 상담 보조자 혹은 여성인권위원회 혹은 여성학 연구원,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시한 네트워크 망이되어야 한다.

▶ 여성에 의한 여성학수업, 강의 개설권과 자치강좌 사업이 필요하다.





아녀들의 사냥 4

마녀와 여우(女友) 사이, 여성의 상상력으로 대학의 공간을 재구성하자!



공간은 정치투쟁의 장이며, 현재의 정치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권력으로 구조화된 캠퍼스를 남성중심적인 공간으로 정치화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대학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단지 공간 속에서 여성의 권리찾기를 넘어서 수직적으로 위계서열화되어 배치된 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요구와 필요, 자율에 의해서 대학의 공간은 승수와 배치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공간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의 환경인 복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직까지도 제기되는 학내 복지문제, 여성들을 위한 학교측의 시설과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고, 여학생처는 존재유무마저 알지 못한다. 여성을 위한 복지, 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상적으로 벌여내야 할 마녀들의 과제이다.

▶ 여자화장실, 확보투쟁

▶ 외진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여성화장실은 남성의 숫자가 많은 공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외진 화장실은 홀로 다녀오기도 겁이나는 공포를 안겨준다.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최한한 성폭력 사건들은 결코 수원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외진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와 남성공간에서의 여성화장실은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

▶ 여성주의 문화와 실험의 장으로서

여성공간마련

▶ 여성휴게실 확충과 공간 확보

수원대내에 편안히 무상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여학생휴게실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여학생휴게실의 확보와 시설마련은 여성문화공간 구성에 있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편안한, 그리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내 가로등 제발 켜있게 하기

우린 야생 고양이가 아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다. 학내 가로등의 소등은 1년의 절반을 차지한다. 가로등은 불을 켜려고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도로 장식용이 아니다. 수원대 캠퍼스의 밤길, 여성 홀로 다니는 것은 정말 곤혹스럽다.

▶ 여성문화모임, 여성주의 밴드,

여성학 버전업 소모임 등의 지지와 구성

▶ 생리대 자판기 시설 보수,

생리대 무상공급

더 이상 긴말이 필요없다. 보수 뿐만이 아닌 여학우를 대상으로 학교는 생리대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 여성들의 전용 실내 체육시설 마련

여성이 땀을 흘리며, 학내 운동장과 족구장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어떠한 시선에도 자유로워, 신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학내에 존재하는가!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학내 운동장과 체육도구는 여성 스스로 소외되게 만든다. 여성을 대상으로한 실내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 여성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과

사이버 통신 여행

정보통신은 여성에게 접하기 힘든 교육이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여성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학우들을 대상으로한 정보통신 교육과 통신, 인터넷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통신상의 여성주의 네트워크 망 구성.

수원대 여성 전용통신모임 구성.

대학내 여성운동단위, 여성주의 모임, 여성동호회, 여성전용 대화실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인간관계를 교류하고, 활동을 해나가는 모임을 여성 스스로 구성해보자. 현재 통신상의 여성망의 탐험과 그것을 기초로한 자신의 의사와 맞는 모임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아녀들의 사냥 5

하향취업의 뒷!
여대생들의 목을
조여온다.



신규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와 고용상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재 경제위기의 현실이 아니라도 여성의 취업률은 저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남녀 공학이나 여대나 여성들은 원서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별다른 대안 없이 그저 토익과 컴퓨터등의 능력과정만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작년 "고용, 승진, 임금"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승진, 임금 상에서의 가산점제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고용상에서 군복무 가산점제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취업의 문이 좁은 상황에서 '국가의 선별 기준에 맞지 않는 남성이나, 장애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는 여전히 '능력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말로 현재 실업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실업의 절망들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말 여대생들의 취업현실이 나아지고 있는가? 고학력 여성의 '하향 취업'에 관한 연구(1999)에 의하면 실제로 대졸 여성의 경우 10년간 대졸여성의 대기업 채용규모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이후 대졸자 전체 취업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을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이 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주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류대가 아닌 '학벌'과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성별인 '여성'임을 자각하게 하면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공기업과 대기업 같은 핵심노동시장의 진출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결국 여성의 학력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극복방안을 제하고 여성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철저한 취업준비를 해야한다는 노동준비과정의 대한 지적과 눈높이를 낮추라는 하향취업에 대한 권고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수치로서의 신규여성 실업문제에 대한 개선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하향 취업의 뒷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불안한 전망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서 절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일로는 더이상 신규 여성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학내 여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질적 지원을
강화를 위한 마녀들의 생각

▶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과 여성취업 사이트 개설을 강화해야 한다.

여학생 사회진출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구직에 있어서의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파악한 속에서 여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여학생처와 함께 구성할 것이다. 솔직히 학내에서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여학생처에게 할 일을 주어야 한다.

취업 사이트의 개설을 통해 여성취업 유망직종 및 동향 파악이 정기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여성차별 사례

와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학교측의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 정보화 되어야 한다.

▶ 취업박람회 유치시 여학생의 구직인원과 구인 기업간의 비율 일치!!

매년 취업 시즌이 되면 교내에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취업박람회는 말 그대로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을 찾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장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업의 구인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은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 비해 낮았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구직하기 이전부터 좌절을 경험을 갖게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포기해 버리거나 하향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기에 취업박람회 유치시 여학생의 구직인원과 구인 기업간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은 고용상의 평등과 여성들의 진출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운동 단위, 취업상담실, 학생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여학생 구직 수첩 배포,

구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입직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등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마련하여 여학생들의 구직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아녀들의 사냥 6

수원대 민주주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마녀들의 생각.

수원대는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안에 몸담고 있는 교수나 학생들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 없이 대학자체의 본질까지도 왜곡 시켜나가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개혁이 아닌 대학 구조조정과 BK21로 대변되는 몇 개의 대학만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 학부제 실시, 그리고 우수대학 선별지원, 학문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외부에 의해 평가되는 대학종합 평가 인정제로 대학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축소시켜나가고 있는 개혁 아닌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부제 실시는 수원대 문화를 궁핍하게 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의 대거 축소와 비인기 과목과 인기 과목의 양분화 속에서 지식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과와 학부의 혼란속에서 자치적인 흐름과 학생 대중의 통합력은 개별화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교육 소비자로서 학교와 당국의 관리대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의 교육주체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보다는 학교당국, 교육부, 국회등의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고, 대학구성원들에게는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기에 어쩔수 없다는 인식을 암암리에 주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학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수원대, 대학 민주주의 복원과 교육의 정상화는 그 어떤 누군가가 찾아주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등록금 인상 저지!
BK21 철회! 수원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 2000년 등록금 인상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000년 수원대 등록금 인상 저지와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 허울과 비약으로 무장된 BK21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BK21은 수치상으로만 한국교육을 따지려 한다. 대학간 서열을 더욱더 가속화, 안착화 하고 그 안에 인문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이분화 및 서열을 가속화를 조장하고 있는 BK21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대학행정의 민주적 복원 - 대학 행정의 대학구성원들에 참여와 구성권을 주장한다.

그 누구도 대학의 주체는 총장과 재단이사라고 말하 는 이는 없다. 대학의 주체는 대학의 구성원 즉, 교수-학생-교직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체로서의 대학구성원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이 왜 인상되었는지, 인상된 등록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미 짜여진 틀에서 순종하는 것 이상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녀들의 사냥 7

총여학생회,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학우들의 이해를
반영해야 할
학생회,
진정한 자치를
꿈꾸며

수원대에서 민주와 자치의 질서가 복원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대학의 주체인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행정의 전반에 참여권과 구성할 수 있는 구성권이 주어지야 된다.

수원대 학생회의 위치는 어떠한가! 학생회 사업의 무관심부터 학생회의 존재자체마저 의미성이 사라지는 수원대의 현실은 학생회 운영과 방식, 내용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학생회를 통한 모든 의사구조의 수렴과 대중운동을 모아내는 것, 중심된 위치와 권력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운영과 형식적인 시기별 사업으로 점철되지 않는 대중운동 단위, 자치단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더 이상 모든 대중운동이 학생회를 통해서 해결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위해서 학생사회 내에서 학생회 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운동을 담보하려는 구조를 탈피한 다양한 대중운동 단위와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학원내의 민주주의와 대중 자치적인 운동 구조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자치단위 연석회의, 대중운동 연석회의, 행동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학생회 외곽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동그룹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공간'과 '재정'의 어려움이다. 간혹 '공간'과 '재정'이라는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당장에는 '공간'과 '재정'적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진보적 사상과 운동이

충분하게 교통되는 연대의 광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실, 진보적 정보 뱅크 그리고 통신 공간의 마련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가져 갈수 있도록 한다.

▶ 여성주의 연대, 지역 연대모임,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운동단위간의 연대활동은 99년에 활성화되었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행동위, 여성위원회들의 시기적 연대사업은 많은 성과를 올리고 많은 감격(?)을 주었다. 이와 함께 99년 준비되기 시작한 지역 여성연대모임 '경기남부 여성연대 모임'은 수원대 여성행동위와 아주대 총여학생회, 성대 올전 총여학생회를 기반으로 지역 여성운동의 초별적인 고민을 가져갔으며, 현재 내년 활동에 대한 구상속에서 다양한 단위와의 연계와 확장을 사고하고 있다.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주의 연대의 살아있음을 2000년에도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 여성의 몸, 우리의 몸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것들



아이를 낳아야 할 몸이니 조심해야지.....

얼마전 길거리에서 진행된 여성들의 담배 퍼포먼스를 신문과 방송에서 '여성흡연은 당치도 않은 일' '여성은 아이를 낳을 몸이기에...' 라는 내용으로 떠들썩하게 보도한 적이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중요한 '씨'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성을 씨야 하고,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성을 미화시켰다. 그렇게 중요한 씨를 가진 남자가 건강을 해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래도 되는 일,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발에 지나지 않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마치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말들에는 사실 여성은 없다. 여성의 몸에 있어서 인격을 빼버린 건강한 자궁의 의미만을 부각시키며, 여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산할 수 있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으로 구분하는 남성의 소유관념에 의한 여성만이 존재한다.

모든 여성은 언제나 출산의 준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듬고 있어야 하며,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당치도 아닌, 절대 허용 할 수 없는 것이다. 출산이라는

문제는 여성의 출산을 수행하는 자궁의 수단에만 가치가 매겨지고, 당사자인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속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갖는다.

어머니가 된다는 환상과 태교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느낌이라는 주어진 틀에 여성의 감정을 맞추어야 한

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입장도 임신의 주체, 낙태의 주체인 여성보다 생명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여성의 인격을 매도하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비롯한 여성의 몸에 대한 육체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지 않으며, 여성의 자율권은 무시된다.

몸에 안맞으면 잘라버려!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아침마다 브레이저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적이 있는가! 일상적인 일들이라, 무덤덤해 질수 있겠으나, 한 번 반문해 본적이 있는가! 왜 브레이저를 해야 하는지...

여성이 입는 속옷들은 남성들과 달리 청결과 함께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준다고 한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보정용 속옷을 입기도 한다.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정숙치 못한 일이며, 그것이 허용되는 사람은 수유중인 여성, 할머니뿐이다. 유두를 가려 정숙한 몸가짐을 갖고, 동시에 아름다운 성적대상이 되기 위해 브레이저를 한다. 더불어 한 여성의 성적 매력은 그녀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 여성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적 시선에 맞추어 다이어트와 보정용 속옷, 하이힐과 화장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자본주의 산업은 역으로 상품판매를 위해 여성들에게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는 의식을 강조한다. 그 안에서 가부장적인 가치들은 더욱더 공고히 되어가고 있다.

치녀 '막'?

치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무언가 닫혀져있는 질입구를 막고 있는 '문'의 형태로 사고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막'이 아니다. 질입구에 있는 근육조직의 이름이며, 특별히 막의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며, 사람마다 다르수 있다. 그러한 근육 조직에 '치녀 막'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놓은 것일까?

'막'은 막는 것의 의미를 지니며, 무엇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여성의 질입구의 근육을 막이라고 명명한 것은 여성의 질이 어떤것에 대해 막혀 있어야 하며 어떤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사고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여성의 소유가 아닌 남성에게 소유될때까지 성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보여주며, 합법적(?)으로 여성의 성이 남성에게 소유당해 정복당하는, 둘러싸여 있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에 대한 신화를 강요하고, 여성들은 혹시나 파열될지도 모르는 치녀막에 대한 강박관념과 파열된 치녀막에 대한 죄의식을 떨치지 못한다.

여성에 의한 시선이 아닌 '막'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요구되는 치녀막 이데올로기는 근육파열의 고통을 숭고하게 감내해야 하는 여성을 진정한 치녀로 간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던져주는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야기

둘,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여성운동

인터넷의 여성주의 사이트 소개

국내의 여성관련 사이트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심마니 등의 한글 검색기에 '페미니즘' '여성주의' 등의 검색어를 치면 여성관련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등을 어느정도 볼수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사이트를 소개해보면,

한국여성단체 연합(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 연합(이하 여연)의 WOMEN21은 평등, 평화, 발전이라는 UN 제4차 여성대회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31개 회원단체(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노동자 협의회등)가 공동 참여하여 이루어진 한국 여성운동 네트워크이다. 가족, 여아, 노동, 성, 인권, 정치, 평화, 통일, 환경 등의 10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CO.KR)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자치 여성센터, 여성노동센터, 생활협동사업본부,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사업관련 자료를 실고 있다. 그동안 자료집들에 실린 중요 사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어있다.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의 성명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법적배상에 대한 근거들,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얻을수 있다.

페미넷(WWW.FEMINET.OR.KR)

영화 낮은 목소리 (WWW.IWORLD.NET/ENTERTAINMENT/MOVIE/BOIM)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변영주감독의 영화 낮은 목소리 1,2 편에 대한 스틸사진,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여성동호회

하이텔 페미니스트들의 천국 (GO FEMI)

여성전용 대화실 (GO WCHAT)

천리안 여성화 동호회 (GO FEMI)

주부동호회 (GO JUBU)

나우누리 여성전용 동호회 생의 한가운데 (GO MIZ)

여성주의 문화연구 모임 (GO SSOCIET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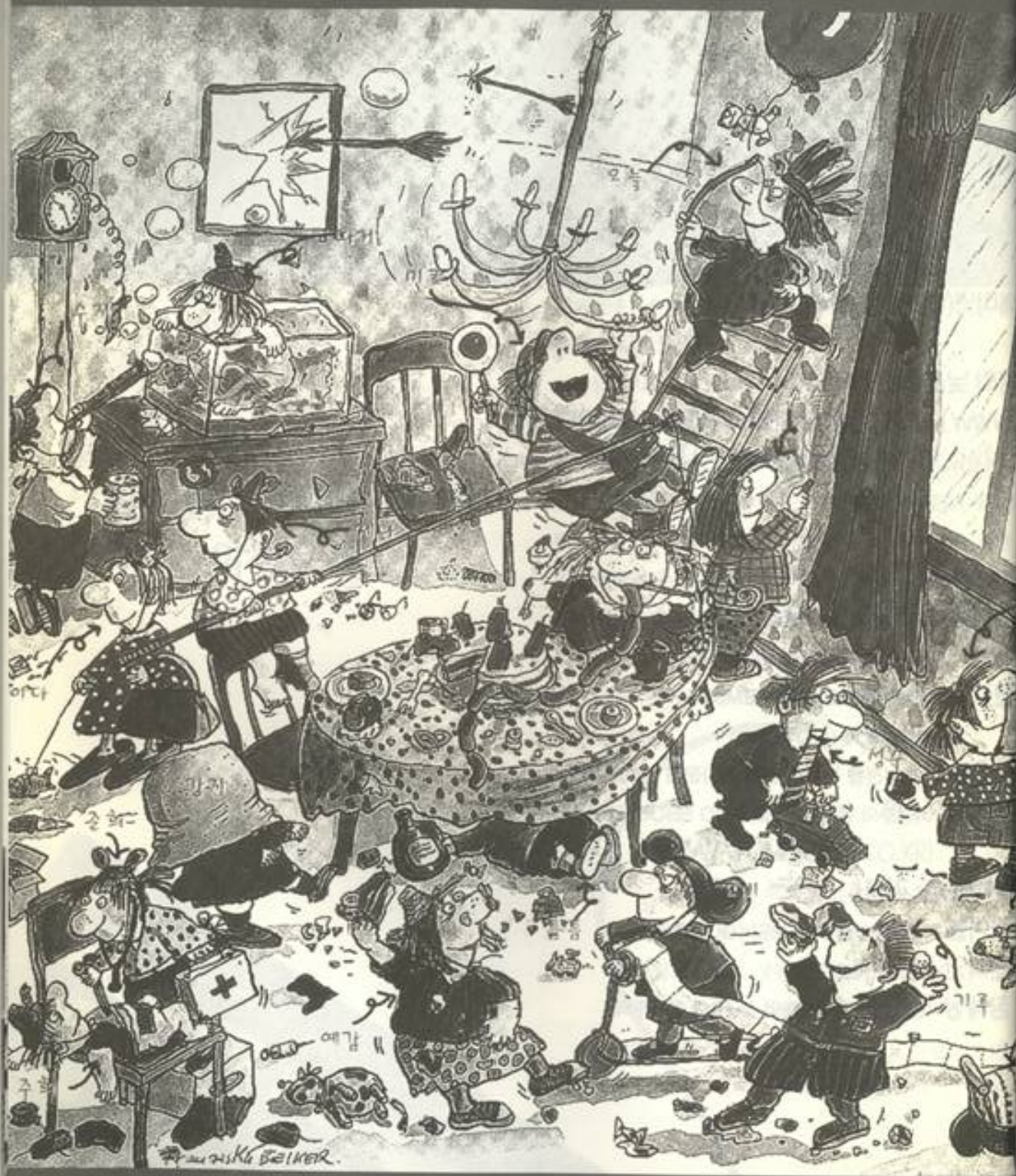
여성분과가 있는 공간

하이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GO BARUN)

천리안 희망터 (GO PP)

참세상 대학 여성주의자들의 집 (GO 여성주의)

일상의 정치, 일상의 전복, 그 통쾌한 세상이 시작된다.



여성문제 및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이것은 마녀들이 수원대 여학우들에게 드리는 설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문항에 답하시고, 가능하면 마녀들에게 답하신 종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항이오니, 마지막 문항까지 답해 주십시오.

1. 우리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치 않다.
전혀 심각치 않다.

2. 여성문제를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항상 느낀다. 자주 느낀다.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3. 여성문제를 어떠한 계기로 인식하게 됩니까?

직접체험을 통해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기타()

4.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여성에게 가장 큰 여성억압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의 선천적 능력 차이의 결과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의 여성전담.
여성의 낮은 취업률

해방 수원대 16대 총여학생회

'마녀' 김경영 · 박선영과 함께 하는 사람

사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부재
사회전반문화에 걸친 남성우월주의 편견.
기타()

5. 여성운동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있고 직접참여하고 있다.
관심있고 직접 참여해 보고 싶다.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은 꺼려한다.
별로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6. 여성운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남보다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7. 대학에서의 여성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소중하게 참고해 수원대 여
학생들을 위한 여성운동을 펼치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호 1번 '아녀' 등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하는 오늘

년 3월!
이루어집니다.

기호 2번 김문희, 안혜영 선거운동본부

팔 레 는 언 제 나 귀 찰 습 니 다 .

땀 에 짜 든 옷 가 지 를 틀 어 다 보 노 라 언

늘 다 음 으 로 미 루 고 싶 지 요 .

그 러 고 보 면 안 경 닦 는 것 조 차

하 기 싫 어 저 서 온 통 세 상 이 회 무 예 저 도

인 식 도 못 한 채 살 아 가 지 요 .

세 상 이 온 통 노 할 게 보 인 다 언

황 사 나 스 모 그 텃 이 아 니 라

안 경 에 낀 먼 지 꽤 은 일 수 도 있 습 니 다 .

자 힘 들 어 도 귀 찰 아 도

청 명 현 신 세 벽 에 일 이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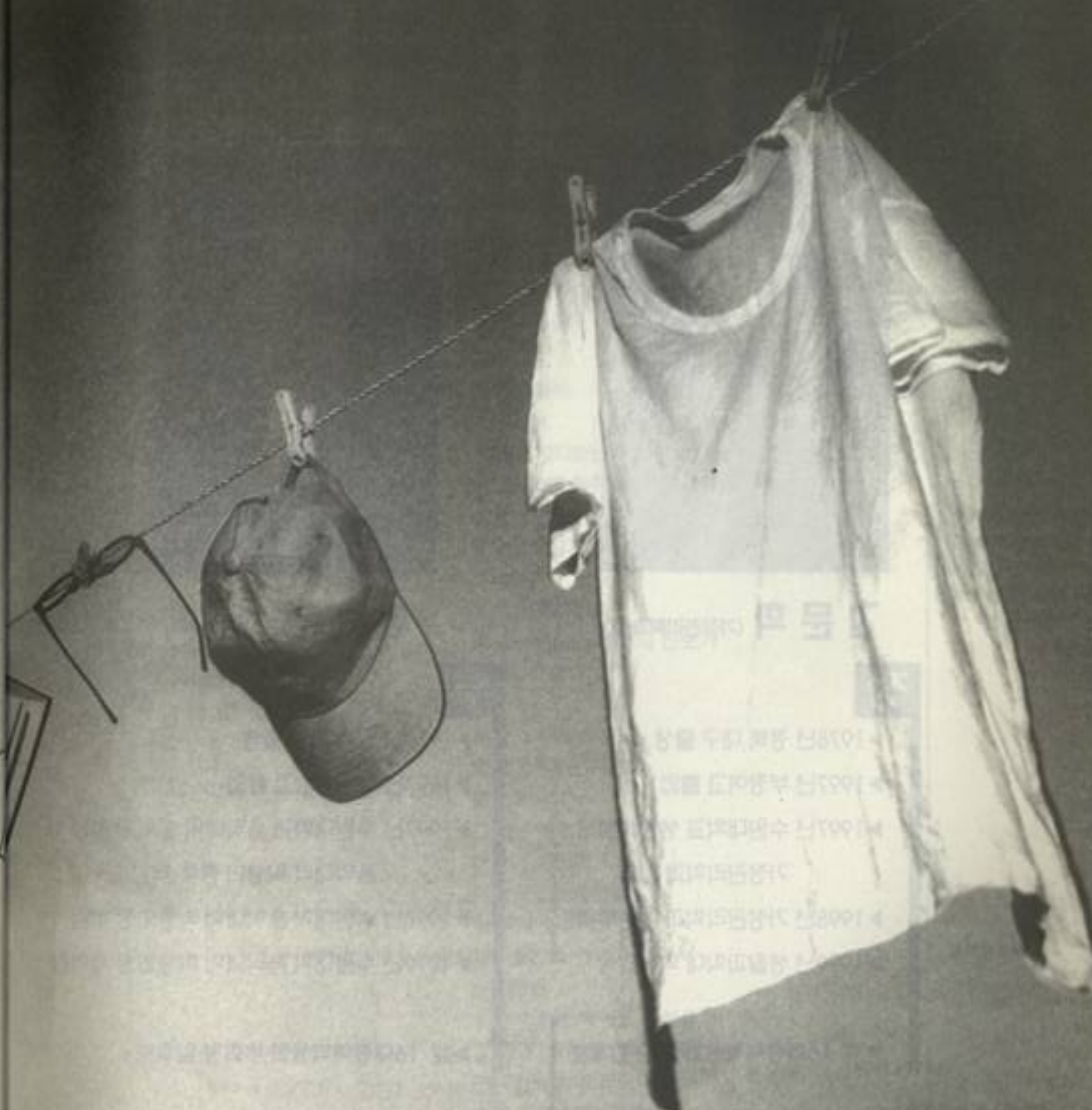
암 말 이 며 기 방 이 며 신 힘 이 며

달 달 땀 언 우 리 의 바 람 을 온 신 까 지

북 북 발 아 널 어 보 자

팔 레 너 이 땀 어 오 는

시 리 도 북 개 쫓 한 시 지 을 위 해





김문희 (가정관리학과97)

정

- ▶ 1978년 경북 대구 출생
- ▶ 1997년 부평여고 졸업
- ▶ 1997년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 ▶ 1998년 가정관리학과 집행부역임
- ▶ 1999년 생활과학대 학생회장
- ▶ 現 16대총여학생회 회장 입후보



안혜영 (성악과97)

부

- ▶ 1979년 경기 가평 출생
- ▶ 1997년 수원영생고 졸업
- ▶ 1997년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입학
음악대학 학생회 총무 역임
- ▶ 1998년 수원대학 음악대학 학생회장 역임
- ▶ 1999년 수원대학 음악대학 학생회장 재역임
- ▶ 現 16대총여학생회 부회장 입후보

▶ **출마의 변**

정후보자: 김문희

부후보자: 안혜영

어디엔가에 있을 목적지를
항해 쉽지가 않다는 것
무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득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시간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가치있는 것들인가를...
무엇인가를 향해
쉽지가 않다는 것
무모해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무모함속에서
역사와 문화와 문명의 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온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에 있었던
좋았던 순간들,
아쉬웠었던 순간들...
타 학교에 비해,
친구들간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왔던
우리학교의 빠른 현실을 직시하며
그 속에 담겨진 여학생회가
어디까지 왔나 되짚어 봅니다.
배를 잡고 삶을 도려내는
아름속에서 변모되어 온
여학생회의 모습들..
이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다가오는
2000년 새 아침을 향해
여학생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니다.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

공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대학 공간이 안고 있는

이 고전적인 모순은 대

학구성원의 집단이거

의에서 비롯되는가 이

라면 대학 당국에 따



아직도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캠퍼스를

상상한다면 그건 오해

다. 운동장은 주차장이

되고 잔디밭은 주차

은 서로 단절되고 경

은 사라졌다. 어느날 문

득 돌아본 캠퍼스는 힘

으로 많이 변해 버렸다.

학생들은 매일 같은 시

간을 캠퍼스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배움과 어

름함과 생활이 펼쳐지

는 곳 그곳이 생활의

진정한 배움터와 살

로 거듭나는 길을 생각

해본다.

○ TODAY'S UNIVERSITY ○



○ 우리들의 자화상 ○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대학생활을 하고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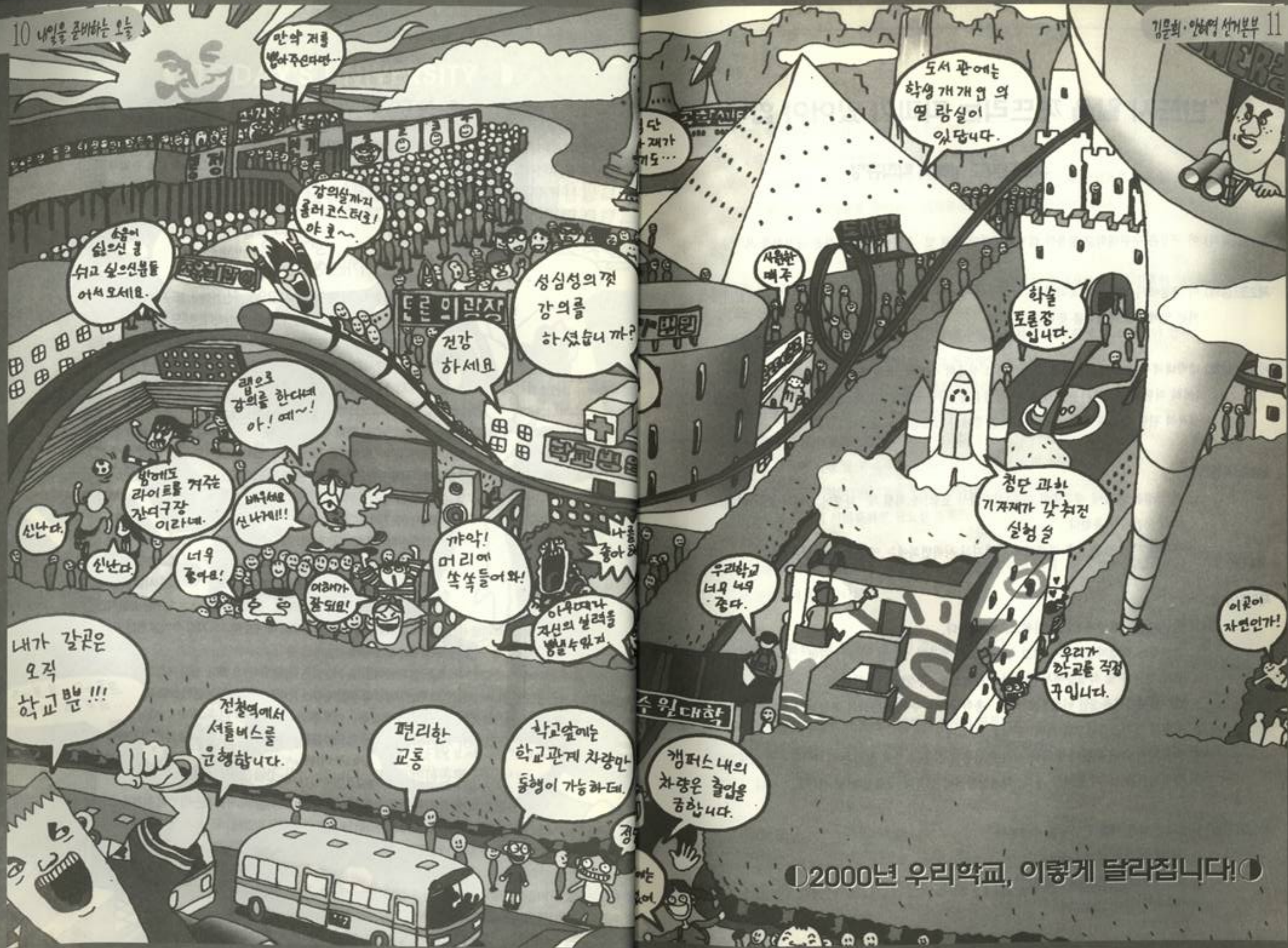
강의에 또는 밀린 레포트에 쫓겨다니며
마치 제 2의 고등학교처럼
너무나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았는지

학점을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하면서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취업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죽이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같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린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린 것들은 아닐까요.

자, 이제 저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을 깨뜨리는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대학교 성폭력 학칙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를 뜻한다.

제3조(설치) 대학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본교에 성폭력 대책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두고 성폭력 상담실을 학생생활연구소에 설치, 운영하며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 관련 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적용범위)

- (1)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 (2)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폭력 상담실 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 전문가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한다.
- (5)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학생상담센터 성폭력 상담실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3. 성폭력 관련된 기타 사항

7조(회의운영)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위원회는 전제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면,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조(사건의 처리)

- (1)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은 본 위원회, 또는 학생상담센터의 성폭력 상담실에 사건을 신건을 신고할 수 있다.
- (2) 성폭력상담실 직원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보고된 성폭력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방법을 심의, 의결한다.
-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발의 또는 필요한 조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고, 봉사, 배사등의 지도 조치
 5.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위한 필요한 조치

제9조(비밀의 준수) 성폭력사건의 처리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는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대학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부칙)

-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 (2)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강 있어요”

◎ 일 시 : 2000년 0월 0일

◎ 장 소 : 인문대 소강당, 법정대 계단강의실,
경상대 문화관, 미대 계단강의실,
음대 콘서트홀

◎ 행사명 : Image Making, Make-up,
여학생 취업특강, T&T의 아.우.성,
호신술 등

◎ 강 사 : ?

◎ 특강내용 : 수원대 여학우들을 위한 교양강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여학생 휴게실>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



「편안한 의자가 있어서 좋다.」



「따뜻한 곳이 그리우십니까?」

축

- OPEN -



자신을 가꾸는 방법...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천없는 공약과 약속을 난무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저희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들의 시야를 현혹하려 했던 시절은
20C를 끝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망 1999년 오늘의 약속, 2000년
내일의 꿈, 꼭!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추가주문받습니다.(Main menu외 주문가능)

메모란

메모란



Today & tomorrow
기후 2배
김문희·안혜영 선거본부